



'푸른 얼굴'

'조선대 미대 산파' 김보현 화백 2주기 기획전시 삶의 한 가운데-푸른 얼굴

3부작 중 첫번째 3월 2일~5월 31일
조선대 김보현 & 실비아올드 미술관

지난 2014년 2월 97세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보현(1917~2014) 화백이 세상을 떠난지 2년이 됐다. 김화백은 평소 "100세까지 전시회를 열겠다"고 말하는 등 눈을 감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은 '영원한 현역'이었다.

경남 창녕 출신인 김 화백은 현재 명성을 떨치고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1946년 전국 최초로 예술대학 설립을 주도했고 초대 학과장을 지내며 많은 후학들을 길렀다.

조선대학교미술관(관장 김인경)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이 김 화백 추모 2주기를 맞아 생애와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3부작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오는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열리는 첫번째 전시 주제는 '삶의 한 가운데-푸른 얼굴'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 화백이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제작한 인물표현중심 작품 54점을 만날 수 있다. 김 화백이 평생 고민했던 삶의 의미와 가치, 표현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담은 작품들이다.

김 화백은 미 군정기와 6·25한국전쟁 당시 좌익, 우익 양쪽으로 물리며 수많은



김보현 화백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내부

은 고초를 당했다. 해방 후 미 군정 때, 조선대 미술대 교수로 재직하며 미군 장교 딸을 과외한 사실 때문에 인민군에게 우익으로 몰려 잡혀갔다. 반대로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발발 후 좌익 혐의로 경찰에게 잡혀가 전기고문을 받았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좌익 혐의로 고(故) 전경자(1924~2015) 화백과 함께 수감되기도 했다.

정치적 고초를 겪은 그는 결국 1955년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서 고국을 등졌다. 이후 30여 년간 한국과 연락을 끊어 1989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동안 '잊혀진 화가'로 알려졌다.

주제와 동명인 작품 '푸른 얼굴'(1994)은 김 화백의 자화상적인 면과 경험, 고백적인 요소들이 숨어있다. 암울한 푸른색만으로 표현된 얼굴은 공허함과 우울함이 느껴진다. 화백이 미국 뉴욕에서 거주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생

활고에 시달리며 느꼈던 외로움, 불안 등의 감정이 전달된다.

반면 작품 '점B'(1995)는 빨강, 초록 배경 속 웃음을 띤 사람을 등장시켰다. 단순화된 선과 원, 새 등을 통해 암울함을 극복하고 희망과 환희를 발산하는 화백의 내적성찰이 담겨있다. 부인 실비아올드 여사를 만나며 뉴욕에서 건물을 구입하는 안정된 삶을 영위했던 순간이 느껴진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김 화백이 작품 스케일을 자기 자신에서 자연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은 6월 '영원한 비상-푸른 새', 9월 '이상향의 세계-자연과 인간' 등을 개최하며 김 화백 작품 탐구와 일생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 개관한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은 김화백이 2000년 조선대에 작품 400여점을 기증하며 만들어졌다. 문의 062-230-676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故 김보현 화백

잃어버린 유년을 찾아서

함정임 칼럼



프랑스 고성(古城) 지대로 유명한 루아르 지방에 갔다가 근처 라 샤펬-앙트네즈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렀다. 루아르 강을 따라 형성된 마을들은 이 고장 출신 대문호 발자크의 삶과 소설의 무대여서 파리에서 하루 또는 이를 짧은 여행으로 다녀오곤 했다. 구두쇠 그랑데 영감의 외동딸 외제니의 일생을 그린 '외제니 그랑데'의 무대 소위르과 '굴짜기의 백합'과 '루이 랑베르'의 집필자인 사체를 돌아보다가 북쪽에 위치한 라 샤펬-앙트네즈라는 지방이 눈에 띄었다.

여행의 묘미란 돌발적인 우연, 또는 우회의 여정에 있었다. 라 샤펬-앙트네즈는 인구 900 명 남짓한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3월이 되면 이 동네에 국제적인 축제가 열리는데, 부조리극 작가가 이오네스코를 기리는 연극제이다. 이오네스코는 '대머리 여가수', '코헬소', '수업' 등을 쓴 루마니아 출신 극작가이다. 루마니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 루마니아의 슬라티나에서 태어난 그는 유학생 아버지를 따라 파리에 왔다가, 아홉 살 무렵 이곳 농가에 맡겨져 2년 동안 살았다. 당시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고, 그의 부모는 이혼 상태였으며, 그는 위탁아 신세였다. 한 마디로 생애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함께 부조리극의 대표작인 '대머리 여가수'를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 발표한 글들에는 이곳에서 보낸 유년이야말로 생애에서 가장 환하고 평화로운 시절로 묘사하곤 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빛으로 충만한 이상향은 이곳을 배경으로 삼았다.

발자크에서 이오네스코의 공간으로 옮겨간 것은 작가에게 창조와 원천으로 작용하는 유년기 삶의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부조리극은 오랫동안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고, 한국에서의 상연(산울림소극장)은 물론, 파리(위셋소극장)와 더블린(트리니티대학 베케트센터) 현장에서 여러 차례 관람해온 터였다.

완만한 구름 사이로 난 간선도로

를 따라 라 샤펬-앙트네즈로 진입하자 빗방울이 떨어졌고, 젖소들이 한가로이 모여 풀을 뜯고 있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이오네스코가 살았던 물방앗간집을 문의하기 위해 면사무소로 갔다. 약속 없이 찾아온 이방인을 면장님은 반갑게 맞아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오네스코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가져와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밖에는 이오네스코의 커리커처와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수여한 명예주민증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곳에 다시 찾아왔을 때, 모두가 나를 알아보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전면에, 그들은 나를 자기들의 일원으로 생각했으며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상한 인연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 출신, 잃어버린 옛 마을 출신이 되어버렸다."(외젠 이오네스코, 『1939년 봄-추억의 파편들, 일기의 페이지들』, 『대령의 사진』)

작가의 유년기는 창작의 보고(寶庫)이다. 오스트리아의 화가 에곤 실레의 기이한 선과 형과 색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국경마을인 체스키크룸루프를 방문한 뒤에 그곳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다. 체스키크룸루프는 화가의 어머니 고향으로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자주 머물렀던 곳이다. 마을을 산책하다보면, 집과 사람들이 실레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생생하다.

이오네스코와 실레뿐만이 아니라 세계 예술사를 빛낸 작가들의 작품들 중 유년의 낯설고도 친숙한 체험에 근거한 예들은 무수히 많다. 카뮈의 아름다운 문장은 극빈한 가정이었으나 빛과 향과 색으로 분출했던 북아프리카 지중해안의 자연에서 보냈던 유년기 추억에서 비롯됐고, 시간과 사랑의 환상을 소설로 탐구한 결핵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여섯 살 무렵까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일리에-콩브레의 체험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오네스코라는 혼혈 위탁아를 받아들였던 라 샤펬-앙트네즈는 이제 그의 고유명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나 중심에는 성당이 있고, 그 앞에는 광장, 그리고 근처에는 학교가 있는데, 교명이 '에콜 이오네스코'(이오네스코 학교)이다. 이오네스코, 실레, 카뮈의 경우를 통해, 누군가 창작을 꿈꾼다면, 먼저 유년의 체험을 알뜰히 챙겨볼 일이다.

(소설가·동시대 한국어문학교수)

◀요시아키 시바타 김도연▶

◀마미 미야케 리에 나가야스▶

앙상블 베를리나 연주회

27일 금호아트홀

앙상블 베를리나 정기 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독일 베를린 음악대에서 함께 수학한 인연으로 결성된 '앙상블 베를리나'는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아르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씨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요시아키 시바타, 피아니스트 마미 미야케, 리에 나가야스로 구성돼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프로코피예프의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번호 56',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조곡' 등이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지원 설명회

광주문화재단이 26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과 '동아리활성화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예술단체지원사업 규모는 3억9900만원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 60여개 단체를 선정해 200만~3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동아리지원사업'은 회원 10인 이상,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50여개 예술동아리에게 총 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icf.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체지원사업은 29일~3월31일, 동아리지원사업은 3월2~4일 접수한다. 문의 062-670-74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움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